

삼학도 한국제분 사일로 발파 해체

14기 40년만에...8월 1일·10일 철거 시민 휴식공간 조성...삼학도 복원 탄력

그동안 '보존이나 철거냐' 논란을 빚었던 목포 삼학도내 한국제분 목포공장 사일로가 40년만에 철거된다. 목포시는 "대삼학도의 바다 조망을 가리고 복원화 사업의 큰 걸림돌이었던 37.5m 높이의 사일로 14기를 8월 1일, 10일 2차례에 걸쳐 '연발 전 도봉파 방식'으로 발파 해체할 예정이다"고 30일 밝혔다.

목포시는 한국제분 목포공장이 충남 당진으로 이전함에 따라 목포 대삼학도 산기슭에 자리한 한국제분(주)의 공장동, 제품창고, 콘크리트 사일로 철거공사를 17억원을 들여 지난 4월부터 추진해 왔다.

이미 공장동(7200㎡)과 제품창고(8600㎡)는 정비 업체공법으로 철거

됐다. 핵심공정인 사일로 발파해체 작업은 8월 1일 8기, 10일 6기 등 2회에 걸쳐 시행한다. 사일로 14기는 직경 9.4m, 높이 37.5m, 총길이 66m에 달한다. 1차 발파는 8월 1일 오후 2시에 사전 절단된 8기를 연발 전도봉파 방식으로 철거하며, 2차 발파 역시 10일 오후 2시 나머지 6기에 대해 같은 공법으로 발파한다.

시는 한국제분 사일로 철거작업이 마무리되는 2차 발파작업이 끝나면 9월까지 철거공사에 따른 각종 잔재물을 완전 정비할 방침이다.

그동안 목포 주민들간에 '삼학도 복원을 위해 철거하자'는 의견과 '산업유산으로서 가치가 높기 때문에 관



8월 1, 10일 철거되는 목포 삼학도내 한국제분 사일로.

광자원은 물론 문화 전시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 대립을 빚어왔으나 시는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 철거로 가닥을 잡았다.

시는 사일로를 해체한 후 이 공장 부지에 대공원장 등 친환경 시민 휴식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사일로를 철거

하면 삼학도 복원화 공원조성공사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돼 조만간 옛 삼학도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목포시는 지난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삼학도 섬 복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부취재본부=임영춘기자 lyc@

국내최대 구레 우리밀 가공단지 본격화

아이쿱생협, 6월 라면공장 완공 이어 생지공장 착공

국내 최대 규모의 우리밀 가공 산업단지 조성이 본격화되고 있다. 아이쿱(iCOOP)생협은 지난 6월 용방면 자연 드림파크내 우리밀 라면공장을 완공한데 이어 지난 27일 (주)립도우 공장 착공식을 가졌다.

립도우 공장은 3698㎡(500여 평) 규모로 40억원이 투입된다. 공장 완공 시에는 우리밀로 만든 생지(냉동반죽)를 연간 1300여 가량 생산할 수 있으며, 우리밀 케이크와 카스테라 생산설비도 갖출

예정이다. 특히 립도우 공장은 1층에는 우리밀 생지를 중심으로 한 생산라인, 2층에는 방문객들이 우리밀 도우와 제품이 생산되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는 견학공간도 함께 조성된다.

아이쿱생협은 구례군 용방면에 4만5000평 규모, 500억원을 투입해 우리밀 가공 및 유통 기능을 통합한 친환경 산업단지인 '구레 자연 드림파크'를 조성 중이다.

지난 6월 완공된 아이쿱 라면공장에서는 국내산 우리밀과 iCOOP

생협이 자체 개발한 조미 수프를 사용한 생협 우리밀라면, 우리밀 해물라면, 우리밀 비빔면, 우리밀 짜장면, 우리밀 하얀짬뽕 등 우리밀로 만든 라면 5종을 생산하고 있다.

iCOOP 생협사업연합회 신복수 회장은 "립도우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국산밀의 소비를 더 대중화시킴으로써 밀 자급률을 높이고, 소비자 또한 보다 우수한 우리밀 제품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이진택기자 lk5826@



엄마의 시범비행

전남도가 주최한 '제2회 전남도 생태환경 디지털 사진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차지한 문길순(광주광역시)씨의 작품 '엄마의 시범'. 엄마의 비행하는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보는 어린 오색딱따구리를 순간 포착했다.

(전남도 제공)

순천만에 전국 첫 습지보호 CCTV

순천만 습지보호지역에 CCTV 통제 시스템이 구축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습지관리를 할 수 있게 됐다. 순천시는 국토해양부로부터 국비 4억원을 지원받아 전국 최초로 습지보호 지역내에 CCTV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고 해룡면 와온마을에서 발원한 용두마을까지 해안가 40km 17개소 43개 CCTV 통제시스템을 구축, 완공했다.

이번 CCTV 통제 시스템 구축으로 무단투기 및 도난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태풍 등 재난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인적이 드문 순천만 해안가 지역에 야간이나 새벽을 틈타 건축폐기물 및 생활 쓰레기가 무단투기돼 해양오염 및 미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황·포구에 정착된 어선의 기근 등 도난으로 순천만 주변 어업인 피해가 발생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습지보호 지역내 용산전망대 등 경관이 우수한 지역은 순천시 홈페이지에 실시간 접속이 가능하도록 해 잘 보존된 순천만을 널리 알리고, 시민과 함께 관리하는 순천만이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예정림기자 jyj@

호남고속철 건설현장 호우피해 예방 시스템 구축

한국 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본부장 김계웅)는 호남고속철도 건설현장에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기법을 도입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30일 철도공단 호남본부에 따르면 호남지역의 대표적 국가하천인 만경강(전북 익산~김제간)을 횡단하는 호남고속철도 만경강교 공사현장 주변의

강우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수위 및 유속을 4~8시간 전에 미리 예측함으로써 집중호우에 따른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대비할 수 있다.

철도공단 호남본부 오세영 건설처장은 "철도건설 현장에서 집중호우에 철저히 대비해 인적·물적 피해가 일절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목포시의회 민간 보조금 전면조사

예술단체·체육회 조사후 9월 특위 구성

목포시의회가 민간에 지원되는 경상 보조금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펼치기로 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의회 관광경제위원회(위원장 노경운)는 비회계종 특별상임위 활동을 통해 민간 경상 보조금에 대한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관광경제위는 우선 민간 경상 보조금 가운데 시립 예술단체와 체육회 부분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를 벌여 문제점이 들어오면 오는 9월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시립예술단체의 경우 일부 사안과 관련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의상비 과다 계상, 세외수입 누락, 인건비 편법 집행, 지휘자 공모과정의 불협화음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체육회도 지난 제294회 임시회에서 서미화 의원의 시정 질의로 보조금 부당 집행이 도마 위에 올라 여론의 질타를 받은 바 있어 이번 시의회의 소위 구성은 시의적절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목포시와 시의회 안팎에서

는 선거를 통해 선출된 의원들이 과연 예술인과 체육인들의 외압을 이겨내고 제대로 조사를 펼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높다.

노경운 위원장은 "행정 사무감사를 통해 밝히기에는 힘듦 점이 많았다"면서 "사실상 팀이라고는 하지만 의원 개인이 하기 때문에 외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으나 앞으로 특위가 구성되면 상황이 반전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현재 목포시가 연간 민간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500억 원대에 달한다.

/서부취재본부=고규석기자 yousou@



면직원들의 옥수수 온정

여수 소라면 휴경기 재배 1.8t 경로당 등 전달

여수시 소라면사무소 직원들이 지역소외계층에 사랑을 전하며 나눔을 실천했다. 소라면사무소는 해마다 관내 휴경농지에 친환경 옥수수를 재배, 불우 이웃시설 등에 전달해 왔다. 올해도 옥수수 1.8t(500만 원 상당)을 수확해 경로당 45곳과 복지시설 8곳에 온정을 나누는 등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하고 있다. <사진>

특히 면사무소 직원들은 박람

회 개최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불우한 이웃들을 돕기위해 퇴근 이후와 주말을 이용 소라면 일대 휴경농지에 옥수수 4790㎡(약 1450평)에 옥수수를 재배해 왔다. 김영근 면장은 "올해는 18개 기관사회 단체와 50여 명의 재경향우회원들에게도 옥수수를 나눠줬다"며 "나눔이라는 조그마한 사랑이지만 이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임문택기자 mtlim@

대한불교조계종 문민정사 남골당 허가번호: 제2006-1

극락전 남골당

선망부모와 당신의 묘지를 누가 관리하겠습니까?

모든 이들의 영원한 안락과 쉼터

가깝고 편안하고 아름다운 곳!!

무등산 문민정사 극락전 남골당이 있습니다

- 후손들의 무관심과 관리소홀 별초를 하지않아 황폐화된 묘, 때가 벗겨진 묘, 동침기를 거치며 붕괴된 묘, 개인이기주의 만연과 전통적인 집단적식 및 친족, 이웃간의 상후부조의식 해이로 전국 무언고 묘는 총 묘지 2천만기의 40%인 800만기에 달하고 있습니다.
- 사신에도 해로운 매장 이장을 해본 사람들은 분분 속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승보다 더욱 편안해야 할 사신이 나무 뿌리와 벌레, 습기의 침해로 심하게 훼손되어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시는 정례법 조성을 멀리 떨어진 산에 도셔 거친 자연환경과 천차지번 속에 두고두고 고통받게 하는 것보다 화장을 하여 남골당에 봉안하면 언제나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실 수 있습니다.

- 문민정사

무등산 문민정사 남골당 전경

무등산 문민정사 남골당 예약 및 봉인문의 062) 228-0108, 010-5103-4004, 010-7179-0108

SINCE 1988

대한민국대표방수제

칠만표 방수제

“제품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칠만하면 100% 완전방수!!

직접 시공 가능합니다!!

옥상, 지하실, 외벽, 주차장, 옥실등 방수를 요하는 곳

최선을 다하며 방수전문가가 책임방수를 합니다.

폭리를 취하는 전적이나 덤핑전적은 넣지 않습니다.

서구 352-7788, 남구 676-7719, 북구 512-7998, 목포 274-5987, 순천 744-8605, 여수 654-7755

(주)칠만공사 / 칠만표방수제

서울 본사 : 02-454-7722